

글로웍스, 풍력발전 블레이드 생산

마그네슘-리튬 합금 사용 ... 유리섬유보다 가벼워 시장경쟁력 높아

글로웍스가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글로웍스는 12월 첫째 주 마그네슘-리튬 합금을 사용한 풍력발전기용 블레이드 제작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국내외 대형기업과 연계해 세계 최초로 마그네슘 블레이드 제조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는 풍력발전기의 날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유리섬유로 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마그네슘 소재로 만들면 가볍기 때문에 시장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웍스 관계자는 “마그네슘 블레이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미국 대형 풍력발전기 생산기업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중에서도 세계적인 수요처를 확보한 곳과 연계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연구기간을 통해 진출하는 사업인 만큼 매출과 수익 면에서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07>